

## 창 원 지 방 법 원

### 판 결

사 건 2016가단104015 손해배상(기)

원 고 박\*\*

소송대리인 변호사

피 고 1. 이◇◇

2. 박◆◆

소송대리인 변호사

변 론 종 결 2016. 6. 8.

판 결 선 고 2016. 6. 29.

### 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 2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◇◇는 2016. 4. 6. 부터, 피고 박◆◆은 2016. 4. 5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균등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피고들의 불법행위

갑 제1 내지 19호증 및 을 제1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(다만, 피고 이◇◇는 아래 사실을 자백한다.), 원고는 1969. 11. 10. 생의 여자로서 2002. 1. 29. 소외 정□□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혼인상태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피고 이◇◇를 만나, 2002. 11.부터 사실혼과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며(원고와 위 정□□의 법률상 혼인생활은 2009. 7. 22.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료하여, 그 이후 원고와 이◇◇의 혼인관계는 사실혼 상태로 변화하였다.), 원고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, 피고 박◆◆은 1969. 1. 30. 생의 여자로서 소외 김●●와 2008. 1. 11.부터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다 위 김●●가 2016. 1. 27. 질병으로 사망함으로써 그 혼인관계가 종료한 사실(피고 박◆◆은 2004. 12. 16. 소외 이△△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바 있고, 위 김●●나 이△△의 소생이 아닌 자녀 셋이 있다.), 피고들은 2014년 봄 무렵부터 서로 알게 되어 현재까지 자주 만나 정교를 하고 임신을 한 후 낙태를 하기도 하였으며(피고 박◆◆은 2014. 6.경 피고 이◇◇가 원고와 사실혼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.), 암으로 투병 중인 위 김●●가 사망하면 결혼하여 살기로 약속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,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였으

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고, 이에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기도하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·육체적 질환을 얻었으며, 피고 이◇◇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2015. 4.경 피고 이◇◇와 동거하던 집을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.

## 2. 위자료의 액수

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이◇◇의 사실혼 상태를 고의로 파탄케 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(대법원 1963. 11. 7. 선고 63다587 판결 참조),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한편, 원고와 피고 이◇◇의 사실혼 상태가 지속된 기간과 동거기간,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와 이전의 혼인 경력, 피고들의 불륜관계의 내용과 이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, 그 위자료 액수는 2,000만 원이 상당하다.

## 3. 결론

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의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양경승